



코로나19와 보험산업 관련 활동성 변화

김세중 연구위원, 김유미 연구원

- 본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었던 2020년 상반기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성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보험산업에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살펴보도록 함
 -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활동성 변화는 교통량 및 의료이용량, 개인 이동량 등이며, 각각의 활동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을 선별하여 살펴봄
 -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이후, 확진자 수가 안정화 되면서 코로나19의 영향이 해소되는 양상을 보여 왔으나 최근 확진자 수가 다시 300명을 넘어서면서 재확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상반기 교통량 및 의료이용, 개인 이동량은 큰 폭으로 위축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건강 및 질병보험의 손해율이 일시적으로 개선되고 대면영업채널의 영업환경이 악화되었을 것임
 - 2020년 월별 전국 교통량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월과 3월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진정세가 확인해진 5월 이후로는 예년 수준을 회복함
 - 의료이용량 변화를 관련 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의료자원이 집중되면서,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상당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Google이 2월 15일부터 제공하는 대중교통 이용량 데이터를 살펴보면 개인의 이동량은 아직까지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1월 13일부터 제공되는 Apple 이동성 데이터 또한 개인의 이동량이 코로나 이전인 1월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고 코로나19 재확산 시 2020년 상반기와 같은 보험산업 관련 활동성 변화는 재현될 것이기 때문에, 전염병의 확산이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에도 자동차 사고 빈도 감소는 일시적일 수 있으나, 대면채널인 설계사 채널의 영업력은 지속적으로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각종 지표는 보험산업 관련 활동성 변화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실제 현상과는 다를 수 있으나, 전염병의 확산 시 환경변화를 예측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1. 검토 배경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시행 등은 교통량 및 의료이용 감소, 개인 이동량 감소 등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성 위축을 야기함

-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성 위축은 사망률이나 질병 발생률을 기반으로 하는 사망보험, 연금보험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그러나 교통량 감소는 자동차 사고를 억제하여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비필수 의료이용 감소는 건강 및 질병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대인보험 손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개인 이동량 감소는 보험산업의 주요 판매채널인 대면채널의 영업기반 약화를 야기할 수 있음

-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이후, 확진자 수가 안정화 되면서 코로나19의 영향이 해소되는 양상을 보여 왔으나 최근 확진자 수가 다시 300명에 육박하면서 재확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2월 중순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3월 3일 일별 최고치인 851명까지 증가하였으나, 4월 이후 확진자 수는 50명 내외로 안정화 됨
- 그러나 8월 14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8월 18일 현재 일별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명을 넘어선 이후 8월 26일에는 320명을 기록함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으나, 연초와 달리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고 무증상·경증 감염자가 많아 코로나19의 2차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었던 2020년 상반기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성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보험산업에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활동성 변화는 교통량 및 의료이용량, 개인 이동량 등이며, 각각의 활동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을 선별하여 살펴봄
- 코로나19가 대규모로 재확산될 경우 보험산업 관련 활동성 변화 또한 재현될 가능성이 높으며, 보험산업의 영향 또한 반복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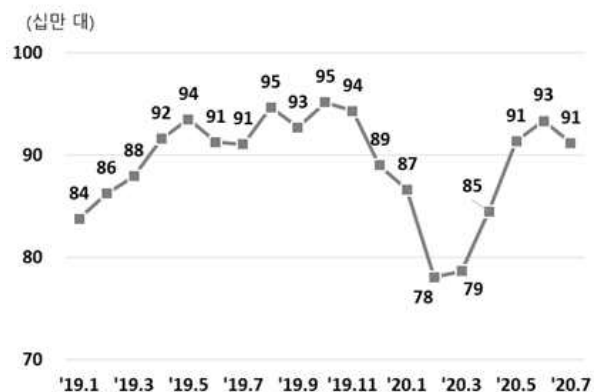
2. 보험산업 관련 활동성 변화



■ 한국도로공사¹⁾에 의하면 2020년 이후 월별 전국 교통량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월과 3월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진정세가 확인해진 5월 이후로는 예년 수준을 회복하였고, 이로 인한 자동차 대물보험의 일시적인 손해율 개선을 예상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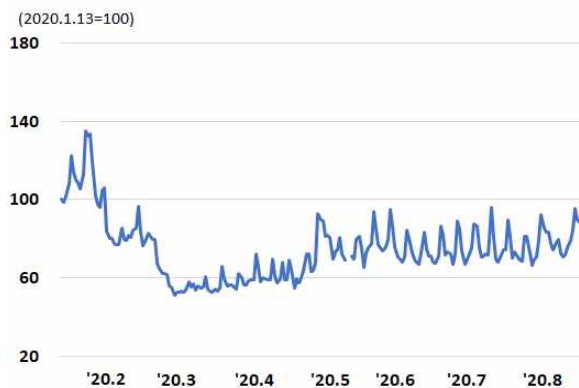
-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의하면 월별 전국 교통량은 2020년 2월과 3월 전년 동기 대비 10% 내외로 감소하였으며, 4월에도 7.8% 감소하며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나, 5월 이후로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회복함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접촉 기피로 출퇴근 시 대중교통보다 자가차량 이용이 확대되었을 수 있으나, 수도권 교통량의 경우에는 전국 교통량 추이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미국 IT기업 Apple이 제공하는 차량운행 지표를 살펴보면 2월 중순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점을 기록한 2월말에서 3월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을 알 수 있으며, 4월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0년 초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Apple은 자사 스마트폰의 지도로 요청되는 안내 횟수를 토대로 코로나19 이후 차량운행, 도보 및 대중교통 이용량 변화 지표를 제공하고 있음²⁾
- 코로나19로 인한 교통량 감소는 자동차 사고 빈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2020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중 대물보험 손해율은 일시적인 개선과 이후 기간 동안의 소폭 개선을 예상해 볼 수 있음

〈그림 1〉 전국 교통량 추이



자료: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

〈그림 2〉 Apple 차량운행 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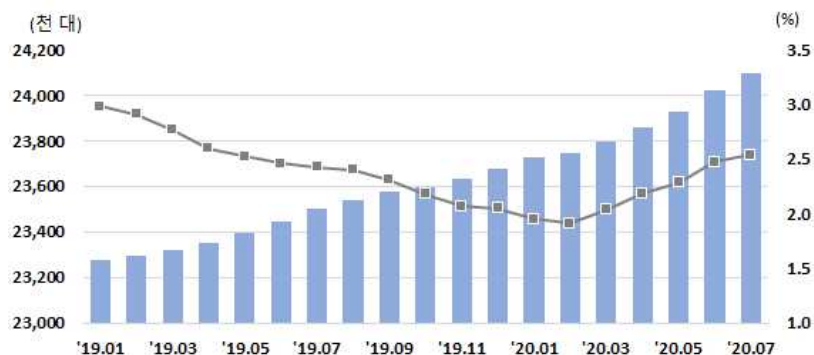
주: 2020년 1월 13일 검색량을 100으로 환산한 수치임
자료: Apple, "Mobility Trends Reports"

1)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http://data.ex.co.kr/>)을 통해 일별 전국 교통량 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2) <https://www.apple.com/covid19/mobility>

■ 한편 자동차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내수경기 방어를 위한 정부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로 3월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자동차 보험료 증가가 예상됨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내수소비가 급감하자 정부는 내수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였음
-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2019년 1월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왔으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시행된 2020년 3월 이후 크게 개선됨
 -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경기둔화는 자동차 수요를 억제할 수 있으나,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오히려 큰 폭 증가함
-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는 7월 이후 소멸될 것으로 보이나, 2020년 3~6월 기간 자동차 등록대수의 큰 폭 증가는 자동차보험 보험료 증가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임

〈그림 3〉 자동차 등록대수 및 증가율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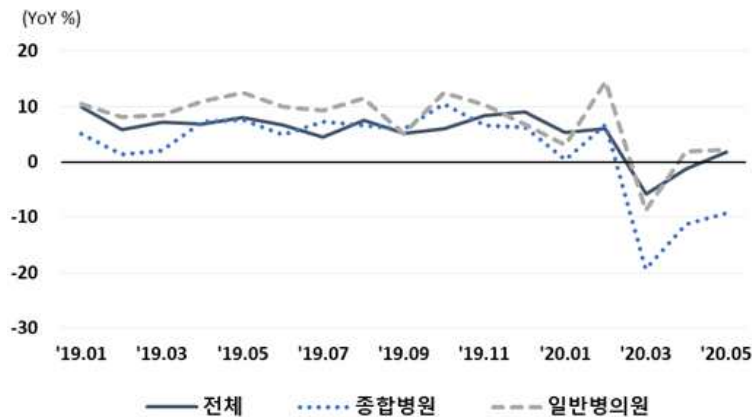
■ 의료이용량 변화를 관련 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의료자원이 집중되면서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상당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³⁾은 의료이용 변화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의료기관별 카드 이용액 데이터를 제공하며, 의료기관 총 카드 이용액은 2020년 3월 이후 크게 감소한 후 5월까지 그 영향이 일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의료이용 감소는 일반병·의원에 비해 종합병원에서 큰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종합병원이 주로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에 거점 역할을 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비필수 의료수요 감소와 의료자원 배분차원의 의료 서비스 공급 제약에 따른

3) <http://ecos.bok.or.kr/>

의료이용량 감소는 정상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 및 질병보험과 자동차 대인보험 보험금 청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그림 4〉 의료이용 카드사용량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코로나19로 인한 개인 이동량 변화는 보험산업의 주요 판매채널인 설계사 채널의 영업환경 변화를 의미할 수 있으며, 개인의 대중교통 및 차량 이용량 및 도보이동 거리 등의 스마트폰 검색량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음

- 설계사와 같은 대면채널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면채널 영업의 정상화는 개인의 이동량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지 여부와 관련이 있을 것임
-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스마트폰 OS를 제공하는 Google과 Apple 등은 특정 장소에서의 인터넷 트래픽 또는 목적지 검색량 등의 정보로 개인의 이동량을 지표화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음
 - Google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매점, 여가 시설, 식료품점과 약국, 공원, 대중교통 정거장, 직장, 주거지 등에서의 스마트폰 사용량을 토대로 개인의 이동성 변화 추이를 제공함⁴⁾
 - Apple은 자사 스마트폰 지도 서비스에서 이동을 위해 검색한 경로 정보를 토대로 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이용량 변화 추이를 제공함⁵⁾
- 개인의 장소별 스마트폰 이용량 및 경로 검색량 등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개인의 이동성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임

■ Google이 2월 15일부터 제공하는 우리나라 대중교통 이용량 데이터를 살펴보면 최근까지 2월 수준에 머물러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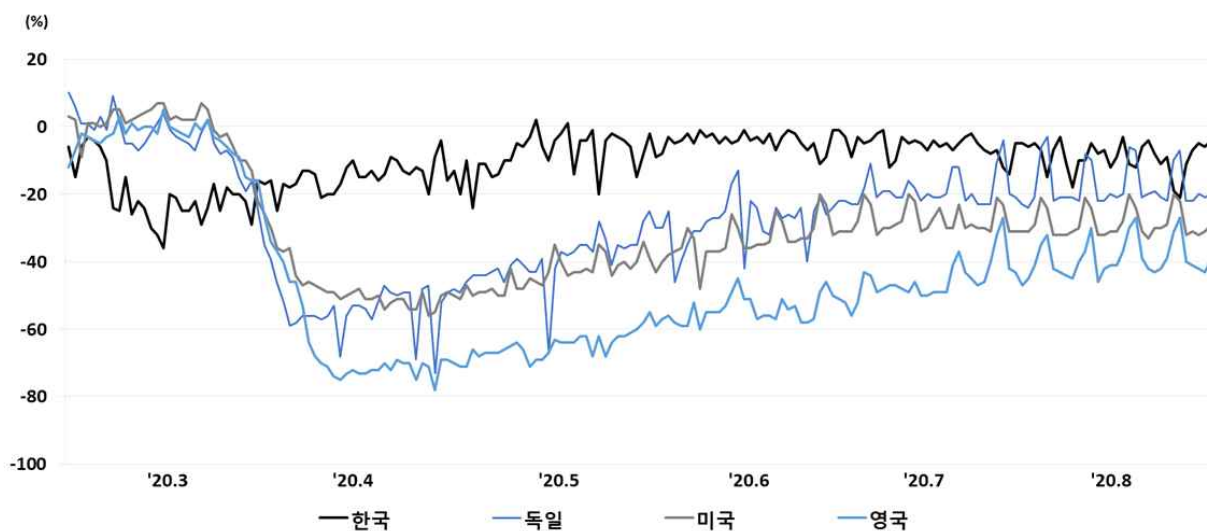
4) Google LLC, “Google COVID-19 Community Mobility Reports”; <https://www.google.com/covid19/mobility/> (2020. 8. 19 검색)

5) <https://www.apple.com/covid19/mobility>

것으로 나타나며, 1월 13일부터 제공되는 Apple 이동성 데이터는 코로나 이전인 1월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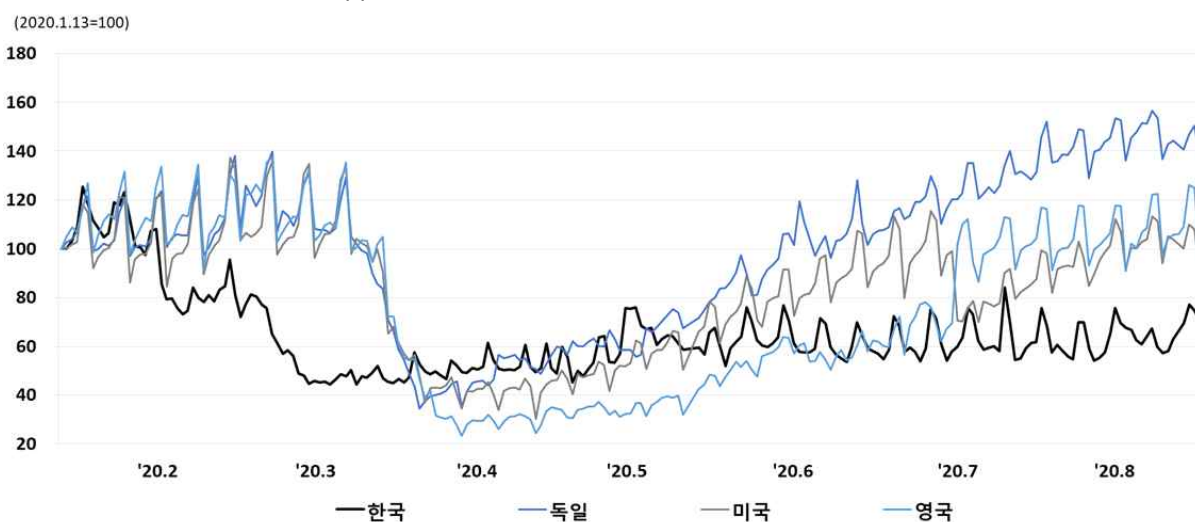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경우 2월에 이미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Google의 이동량 지표가 최근까지 2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통해 2월에 감소한 이동량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해외 주요국의 경우, 3월 이후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대중교통 이용량이 크게 감소한 후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그림 5〉 Google 대중교통 정거장 이동성 지표 추이



자료: Google, “코로나19 지역사회 이동성 보고서”

〈그림 6〉 Apple 이동성 지표 추이(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이용량 평균)



자료: Apple, “Mobility Trends Reports”

- Apple이 제공하는 이동성 지표(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이용량 단순평균)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3월까지 이동량이 감소한 이후 소폭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1월 수준에 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해외 주요국 중 독일의 이동성이 유일하게 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며, 미국과 영국의 이동량은 우리나라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 이동성 지표의 제한적인 회복은 설계사 채널의 영업환경 악화가 코로나19 우려 완화에도 지속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대면채널을 통한 보험상품 구입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은 온라인 또는 다이렉트 채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수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 태도 변화는 장기적인 대면채널 의존도 감소를 야기할 수 있음

- 코로나19 확산 시기의 ‘온라인 보험’과 ‘다이렉트 보험’ 검색량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3월경부터 검색량이 소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온라인 보험’에 대한 관심도 증가는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⁶⁾
- 그러나 소비자가 스스로 보장 니즈를 인식하기 어려우며, 보험상품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으로 인해 대면 채널과 비대면채널의 대체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3. 시사점



■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상반기 교통량 및 의료이용, 개인 이동량은 큰 폭으로 위축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건강 및 질병보험의 손해율이 일시적으로 개선되고 대면영업채널의 영업환경이 악화되었을 것임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동차 운행량 감소는 자동차 사고 빈도를 일시적으로 감소시켰을 것이며, 자동차 등록대수의 큰 폭 증가로 인한 보험료 성장의 긍정적인 효과도 관찰됨
- 또한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상당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이용의 감소가 건강 및 질병보험과 대인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개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 개인 이동성의 제한적인 회복은 코로나19 우려 완화에도 불구하고 설계사 채널의 영업환경 악화가 지속 되고 있음을 의미함

6) 김세중·최예린(2020. 8), 「코로나19로 인한 개인보험 소비자 수요 변화: 인터넷 검색량 분석」, 보험연구원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고, 코로나19 재확산 시 2020년 상반기와 같은 보험산업 관련 활동성 변화는 재현될 것이며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음

-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19의 확산이 진정되면서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 또한 정상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 시 자동차 운행량은 일시적인 감소 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의료이용과 개인 이동성 위축은 상대적으로 지속성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에도 자동차 사고 빈도 감소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대면채널의 영업환경 위축은 지속적일 수 있음

■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각종 지표는 보험산업 관련 활동성 변화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실제 현상과는 다를 수 있으나, 전염병의 확산이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는 데에 의미가 있음

-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교통량 및 의료이용 감소는 예상 가능한 현상이나, 이러한 변화가 자동차보험, 건강 및 질병보험의 손해율 변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지속성을 가지는 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대면채널의 영업환경 악화 예상에도 불구하고 2020년 1/4분기 설계사 채널의 초회보험료 실적은 양호한 성장을 이어나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예정이율 인하 등 다양한 변수들이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변화를 상쇄했기 때문임
- 보험회사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이나 새로운 전염병 발현에 대비하여 전염병의 확산이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kiri](#)